

고물가·불황의 그늘...광주·전남 빈곤층 늘어간다

지난해 광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6.8%로 전국 세번째...전남은 5.9% 자영업자 폐업 급증에 개인 파산·회생 수천건 달하며 차상위 계층 급감

광주·전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과 고물가, 고금리가 겹치면서 취업실 패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것이다. 차상위계층이 무너지는 데다 속출하는 자영업자 폐업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광주 6.8%로, 전북(7.5%), 부산(7.1%)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전남 또한 수급률이 5.9%로 집계돼 전국 평균(4.9%)을 웃돌았다.

광주의 수급률은 2020년 5.8%, 2021년 6.4%,

2022년 6.6%, 지난해 6.8%로 느는 등 증가세다. 전남도 2020년 5.0%에서 올해 5.9%로 뛰었다.

광주의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총 9만 4051명으로, 5년 전인 2019년(7만 6193명)에 비해 23.4% 증가했다. 전남 또한 5년만에 8만 7003명에서 10만 1803명으로 17.0% 급증했다.

광주에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9363명으로 31.2%를 차지했으며, 10대 이하는 1만 7662명(18.7%)에 달했다. 전남은 65세 이상이 4만 6121명(45.3%)이었으며 10대 이하는 1만 6392명(16.1%)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지출은 많고 일자리는 구하기 어려워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이 많아졌기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차상위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락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빈곤율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21년부터 광주시 서구 내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6월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코로나 때보다 요즘이 더 힘들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그나마 지원금이나 상품권이라도 나오니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최근에는 아예 손님도 지갑을 닫아버린 상황이다. 더 가게를 운영하다간 빚만 늘어날 상황이 되자 A씨는 2000여만원의 빚을 미처 갚지도 못한 채 가게를 내렸다.

최근 광주·전남에서는 A씨와 비슷한 이유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국제정국 세무계에 따르면 광주시 폐업자 수는 지난해 2만

6064명으로, 전년(2022년 2만 3101명)에 비해 12.8% 급증했다. 전남 또한 폐업자 수가 2023년 3만 595명으로 전년(2만 6355명) 대비 16.1% 뛰었다.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들도 늘고 있다.

광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20년 2041건→2021년 2239건→2022년 1892건→2023년 1929건으로 점차 감소했고 올해도 7월까지 1006건 접수됐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20년 4714건에서 2023년 6043건으로 28.19% 증가했다. 광주지역 법원 파산 신청건수도 2020년 37건에서 2023년 48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 기준 개인회생 3660건, 법원회생 41건이 접수됐다.

복지 전문가들은 사회 안전망을 점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 1인가구와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이 급감해 폐업 사례가 줄을 이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불어나고 있다"며 "고령화, 젊은 층 인구 유출, 저출생 등 빈곤율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등 지자체의 촘촘한 지역복지 설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코로나 때는 희망이라도 갖고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끝이 안 보이는 경기 불황에 높은 금리, 불안한 국제 경제 등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연발에 오줌누기' 식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재유행하는코로나 예방하세요" 20일 광주시 북구 운암1동주민센터직원들이 북구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 코로나 19 재유행과 관련한 안내문구를 붙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제의 판결

음주운전 동승자 한명 방조죄, 한명 무죄 왜?

광주지법 "만취자, 방조 고의 없어...적극 호응자만 처벌"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탄 동승자 모두에게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동승자 가운데 음주운전에 적극 호응한 탑승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A(여·21)씨와 B(32)씨는 지난해 6월 16일 새벽 4시께부터 오전 6시10분까지 광주시 광산구 주점에서 C씨와 소주 5병을 나눠 마셨다. C씨는 같은 회사 직원인 B씨에게 술을 마시기 전부터 음주운전을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했다.

이들은 C씨가 술에 취해(혈중알코올 농도 0.045%)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씨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조수석, B씨는 뒷좌석에 동승했다. 검찰은 이들이 C씨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한상원)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조수석에 앉아 C씨가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자 웃으면서 적극 호응해 C씨의 음주운전 변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B씨는 소주 3-4병을 혼자 마시며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점이 고려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차량에 스스로 탄 것이 아니고 C씨가 만취한 B씨를 데려다 주려고 억지로 태운 것"이라면서 "B씨가 C씨의 음주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도 농담으로 받아 들였을 뿐이고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테니스장 이용료 수천만원 횡령 공무원 징역형 전기 수리하던 50대 감전사

테니스장 시설이용료 수천만원을 횡령한 남구 소속 공무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한상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구 소속 공무원 A(3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12일 테니스장 이용을 신청한 단체 총무로부터 시설 사용료 3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9년 6월 17일 까지 총 159회에 걸쳐 5800여만원의 시설사용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남구의 한 테니스장 관리업무를 맡은 A씨는 지자체에서 발부한 테니스장 사용료 고지서를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단체 총무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작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 한 점을 고려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기 수리하던 50대 감전사

함평에서 상수도 전기 수리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감전돼 숨졌다.

20일 함평경찰에 따르면 전남 오후 2시께 함평군 월야면 수도 가압장에서 50대 A씨가 전기 설비 교체 작업 중 감전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하청업체 동료 2명과 함께 가압장 내 전기 계통 부품 수리와 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차단기가 울려진 상태에서(380V가 흐르는) 절연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해남서 제초작업하던 50대 벌에 쏘여 숨져

해남의 한 폐교에서 제초작업 중이던 50대가 벌에 쏘여 숨졌다.

20일 장흥경찰에 따르면 전남 오후 1시 20분께 해남군 해남읍 한 폐교에서 풀을 베던 A(58)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A씨는 곧바로 동료 작업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공공근로자로 제초 작업을 하던 A씨는 "등 부위를 벌에 쏘였다"며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외에 벌에 쏘인 동료 한 명 더 있었으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 전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벌에 쏘인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